

# KMI 동향분석

VOL.199

2024 JULY

발간년월 2024년 7월(통권 제199호)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감 수 김민수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기획조정본부 성과홍보실 홈페이지 www.kmi.re.kr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우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닌 집필진의 견해입니다.

## 2023년 연안지역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 40.9조원으로 전년대비 9.3% 증가

최일선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장  
(ilsunchoi@kmi.re.kr/051-797-4727)

이슬기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sglee84@kmi.re.kr/051-797-4768)

김예림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연구원  
(yelimkim@kmi.re.kr/051-797-4797)

황태건 지역경제·관광문화연구실 전문연구원  
(htk@kmi.re.kr/051-797-4784)

2023년 우리나라 연안지역 상권규모는 65조 1,76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수치로, 연안지역 소비는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3년 연안지역 실질 증가율은 물가상승률 3.6%를 감안하여 8.5%로 추정된다. 2023년 전체 업종 상권 카드 결제 건수가 전년대비 7.6% 증가한 21억 3,649만 1,610건으로 집계되었다. 2020년 연안지역 상권규모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한 42조 2,000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2021년에는 47조 7,111억 원, 2022년에는 58조 200억 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2023년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는 40조 9,430억 원으로, 전체 연안지역 상권규모의 62.8%를 차지하였다. 이는 2022년 37조 4,441억 원 대비 9.3% 증가한 수치로, 연안지역 상권규모 증가와 함께 해양관광시장도 동반 성장하였다. 2023년 연안지역 해양관광 관련 업종 상권 카드 결제 건수는 17억 7,091만 8,707건으로 2022년 대비 7.0% 증가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8년의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는 29조 3,546억 원이었으나, 2023년에는 2019년 대비 36.8% 증가한 수치를 보이며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국내 해양관광시장 소비 증가에는 국민들의 바닷가에 대한 매력도 상승과 정부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지원, 해양관광 인프라 개선, 웰니스 관광 등에 대한 수요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우리나라 연안지역 중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부산으로, 2023년 기준 6조 6,709억 원을 기록하였다. 그 뒤를 이어 전남이 5조 5,484억 원, 경남이 5조 3,95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 지역은 전체 연안의 해양관광 평균 매출액인 3조 7,220억 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전체 상권규모 중 해양관광업종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으로 75.8%이며, 뒤를

이어 제주가 71.5%, 경북이 69.3%로 분석되어 이들 세 지역은 연안경제에서 해양관광 의존도가 높음을 시사한다. 2023년 해양관광시장 소비 증가율은 제주(-2.4%), 경남(2.2%), 인천(8.1%)을 제외하고 대부분 전년 대비 평균 상승률인 9.3%를 상회하였다. 제주연안의 해양관광시장 소비액은 2022년 3조 9,526억 원에서 2023년 3조 8,563억 원으로 감소하여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한편 연안지역별 외지인과 내지인의 해양관광소비 비중을 분석한 결과 강원(68.4%), 충남(66.1%), 제주(60.2%)는 외지인 소비 비중이 높았고, 내지인의 관광 소비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은 경남과 전남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연안지역에서 가장 높은 소비를 보인 업종은 음식 업종으로 약 24조 원 수준이었다. 연안지역 해양관광 업종인 소매/유통, 숙박, 숙박 외 오락, 음식 업종을 비교·분석한 결과, 음식 업종 소비 비중이 58.2%로 가장 높았다. 음식 업종의 소비는 2023년 기준 약 23조 8,431억 원으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소비가 약 3조 5,564억 원 대폭 증가하여 코로나19 이후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수산물 업종의 매출액은 4조 5,606억 원으로 전체 음식업종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수산물 업종의 매출액이 높은 지역은 부산(7,285억 원), 강원(5,923억 원), 경남(5,782억 원) 순으로 나타났고, 이를 음식 업종 대비 수산물 업종 소비의 비중으로 보면 충남(32.6%), 경북(28.8%), 강원(24.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매/유통, 숙박, 숙박 외 여가오락 업종의 경우 소비액 증감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어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해양관광시장은 40대와 50대의 소비와 유입인구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2023년 기준 해양관광소비 비중은 40대(30.0%)와 50대(27.2%)가 가장 크게 나타나 가족형 관광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40대와 50대의 연간 평균 지출액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던 결과와 일치한다(KMI, 2024). 한편, 해양관광소비 비중이 낮은 연령대는 20대, 60대, 70대 이상이었으며, 30대, 40대, 50대는 유입인구 대비 해양관광소비 비중이 컸다.

본 연구는 2022년에 이어 2023년을 기준으로 신용카드 빅데이터에 기반한 우리나라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와 트렌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해양관광시장 소비패턴의 변화를 파악하고, 향후 해양관광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나아가 보다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양관광 정책 수립 및 시장 활성화 전략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빅데이터 기반 해양관광시장 분석 개요

## ■ 나이스지니데이터(주)가 제공한 상권매출 및 소비행태 분석 실시

### - 분석기간 및 분석대상

- 분석기간: 지역 해양관광 빅데이터 분석기간은 코로나 영향 비교·분석을 위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5년(60개월)을 대상으로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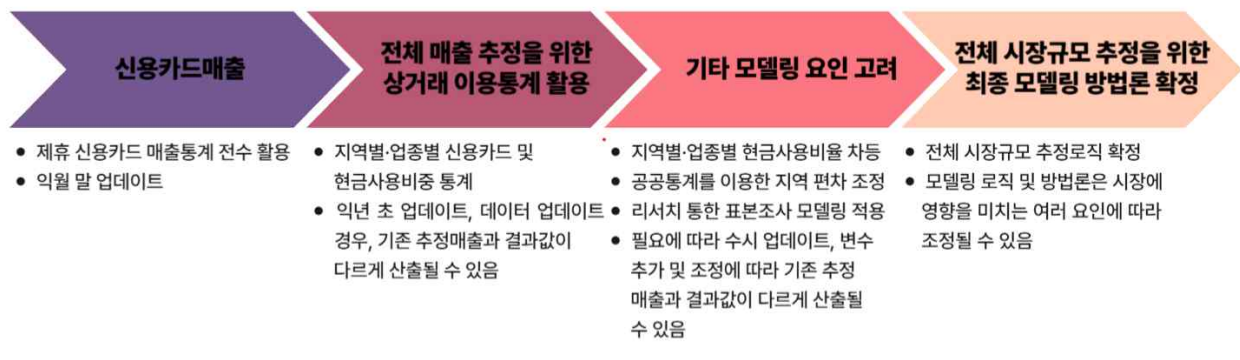
\* 2019년-2022년까지의 데이터는 기존 KMI 동향분석(2023.8)자료 활용

- 분석대상: 2023년 기준 해양 연안지역 행정동 461개

### - 분석방법 및 활용데이터

- 분석방법: 4개 카드사 정보를 활용하여 카드사/지역/업종 점유비 및 현금사용 비중 적용 추정식을 반영, 전체 상권규모를 추정함

〈그림 1〉 지역 해양관광 신용카드 빅데이터 분석방법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 · 활용데이터

- ① 지역 상권 매출 업종: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소매·유통, 음식, 여가오락(숙박 포함), 생활서비스 및 교육·의료 서비스 등 전반적인 상권을 평가함
- ② 해양관광 관련 업종: 해양관광으로 인한 지역 상권은 영향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지역경제와 밀접한 업종을 중심으로 활용하였으며, 숙박, 숙박 외 여가오락, 음식, 소매·유통업(단, 분석대상 지역의 업종별 점포표본 수 3개 미만 데이터는 제외)

\* 2023년 해양관광 관련 업종에 새롭게 추가된 업종은 할인점, 백화점/쇼핑몰, 면세점, 일반호텔이며, 삭제된 업종은 일반스포츠 업종임

〈표 1〉 지역 해양관광 영향효과 분석 업종

대분류	중분류
소매·유통	음/식료품소매, 의복/의류, 패션잡화, 스포츠/레저용품, 종합소매점 등
숙박 외 여가오락	취미/오락, 요가/마사지 등
음식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수산물요리, 고기요리, 커피/음료, 주점 등
숙박	일반호텔, 기타숙박, 리조트, 모텔/여관, 펜션 등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 분석

### ■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연안지역 상권규모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65조 1,766억 원 수준

- 2020년 우리나라 연안지역의 상권규모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6.5% 감소한 42조 2,418억 원 수준을 기록
-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여행트렌드 변화로 연안, 해안이 더욱 주목받으면서 연안지역 상권 규모는 2021년 47조 7,111억 원에 이어 2022년은 전년 대비 21.6% 증가한 58조 200억 원을 달성
- 연안지역 방문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2023년 상권규모는 65조 1,76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3% 증가<sup>1)</sup>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3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3.6%<sup>2)</sup>을 반영하면 연안지역 상권 매출액의 실질 증가율은 8.5%로 추정<sup>3)</sup>

〈그림 2〉 연도별 연안지역 상권규모 변화 추이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1) 전년 대비 2023년 연안지역 전체 업종 상권 카드 결제 건수 7.6% 증가(2022년: 1,984,791,511건 → 2023년 2,136,491,610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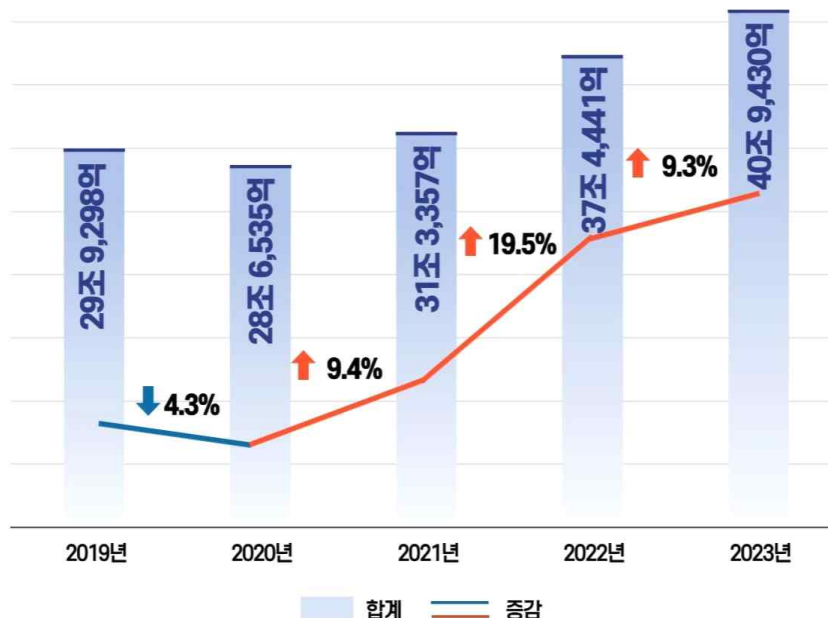
2) 통계청 2023년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보도자료('23.12.29.)

3) 실질증가율≈((2023년 상권규모 - 물가반영한 2022년 상권규모)/물가반영한 2022년 상권규모)\*100

## ■ 2023년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는 40조 9,430억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62.8% 수준

- 2023년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는 40조 9,430억 원 수준으로 연안지역 전체 상권규모의 62.8% 수준으로 나타남
- 이는 2022년 37조 4,441억원 대비 9.3% 증가한 수치로 연안지역 상권규모 증가와 함께 해양관광시장도 동반 증가한 것으로 보임<sup>4)</sup>
-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의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29조 9,298억 원)와 비교했을 때 36.8%가 증가하며 해양관광시장은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해양관광시장 소비 증가에는 국민들의 바닷가에 대한 매력도 상승과 함께 정부의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정책 지원과 해양관광 인프라 개선, 웰니스 관광 등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다만 2022년의 전년대비 소비 증가율인 19.5%에 비해 2023년은 9.3%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2023년이 코로나19로부터 해외여행 재개된 해로 이러한 요인이 원인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음
  - 2023년 내국인 출국자수는 2,271만 5,841명으로 2019년(2,871만 4,247명) 대비 회복률은 79.1% 기록<sup>5)</sup>

〈그림 3〉 연도별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 변화 추이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작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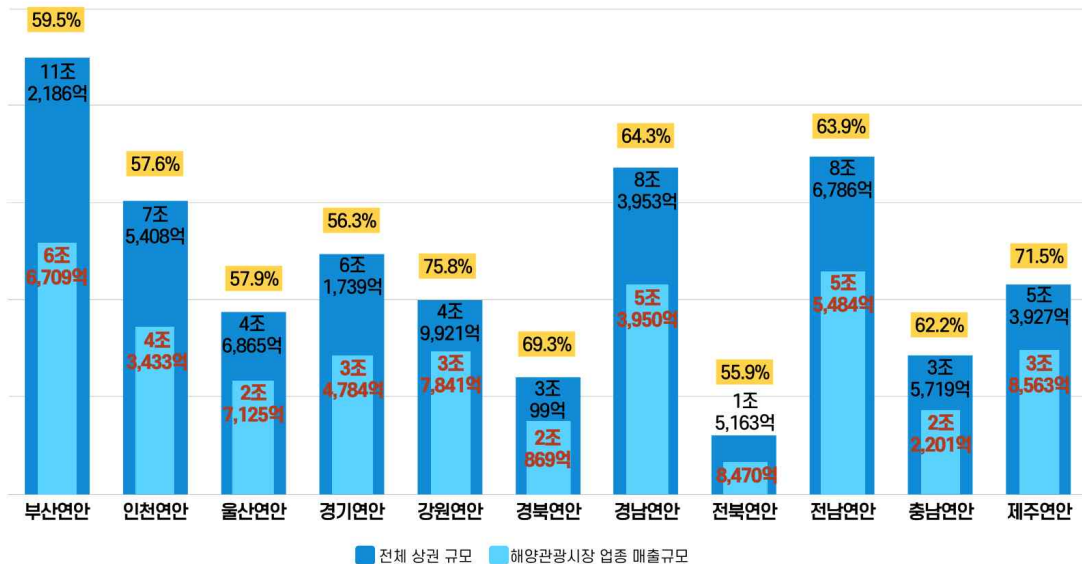
4) 전년 대비 연안지역 해양관광 관련 업종 상권 카드 결제 건수 7.0% 증가(2022년: 1,654,614,123건 → 2023년 17,70,918,707건)

5)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출입국 통계 참고

## ■ 우리나라 연안지역 중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부산(6조 6,709억 원)이며, 전체 상권규모 중 해양관광업종 매출액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75.8%)

- 연안지역별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는 1위 부산 6조 6,709억 원, 2위 전남 5조 5,484억 원, 3위 경남 5조 3,950억 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연안의 해양관광 평균 매출액인 3조 7,220억 원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한편 전체 상권규모 중 해양관광업종 매출액 비중은 강원(75.8%), 제주(71.5%), 경북(69.3%) 순으로 높게 나타남. 위 세 지역은 절대적인 매출액 규모는 작지만, 지역 경제에서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해양관광 산업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그림 4〉 연안지역별 전체 상권규모와 해양관광시장 비중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작작성

## ■ 연안지역별 외지인<sup>6)</sup>의 관광 소비 비중이 높은 곳은 강원(68.4%), 충남(66.1%), 제주(60.2%)이고, 내지인의 관광 소비 비중이 높은 곳은 경남(62.1%), 전남(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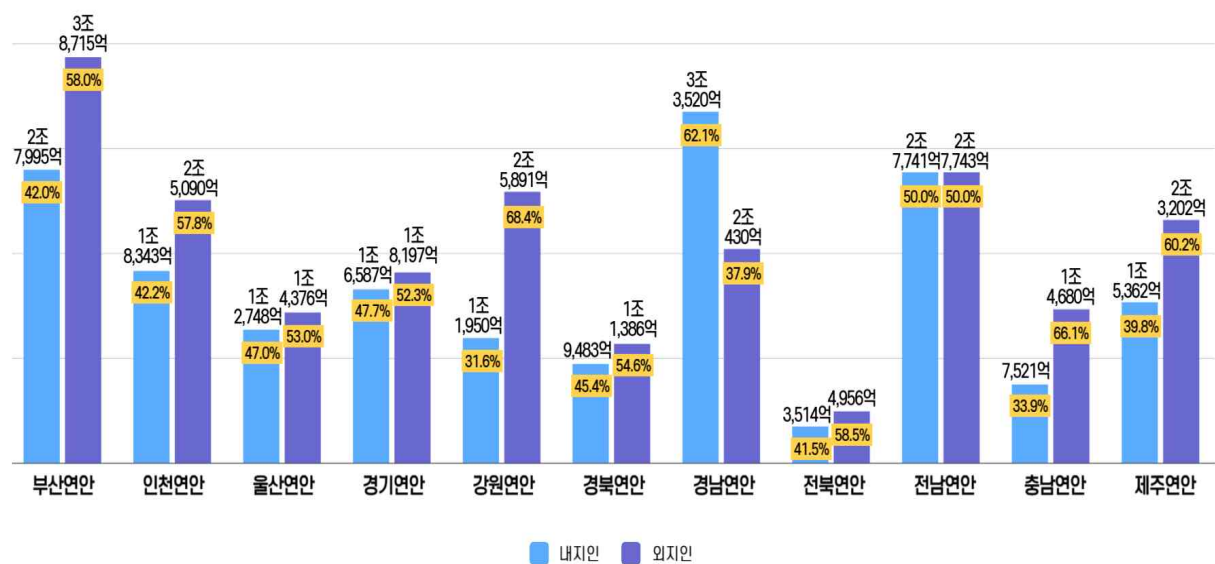
- 연안지역의 외지인 관광소비 비중이 높은 지역은 강원(68.4%), 충남(66.1%), 제주(60.2%)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내지인의 관광소비 비중이 50% 이상인 지역은 경남이 62.1%, 전남이 50.0% 인 것으로 나타남

6) 외지인은 결제 지역과 거주지의 시군구 코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분류함(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운대구에 결제한 경우는 내지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부산광역시 수영구에서 결제한 경우는 외지인으로 분류함) 단, 거주지역 정보가 없는 경우 외지인으로 분류함



- 앞서 강원과 제주의 경우 전체 연안지역 상권규모에서 해양관광업종 매출액 비중이 70% 이상을 차지하였고, 외지인 비중도 타 지자체 대비 높아 외지인을 위한 숙박 등 관광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석됨
- 반면에 경남과 전남은 내지인의 해양관광 소비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지역민을 위한 친수·여가 공간 조성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림 5〉 연안지역별 내지인과 외지인 소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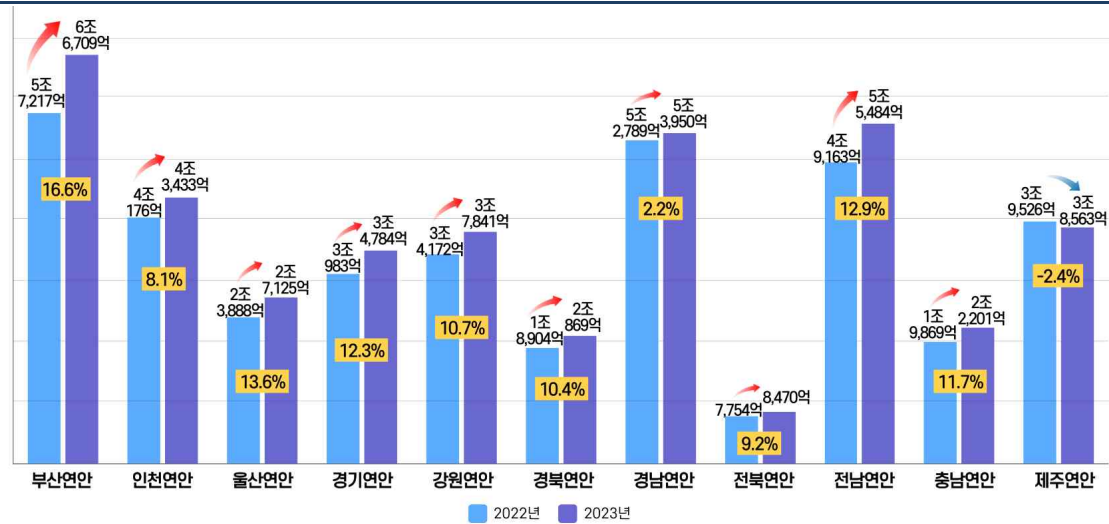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작작성

## ■ 2023년도 해양관광시장 소비 증가율은 제주(-2.4%), 경남(2.2%), 인천(8.1%)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년 대비 평균 상승률(9.3%) 상회

- 제주연안의 해양관광시장 소비액은 2022년 3조 9,526억 원에서 2023년 3조 8,563억 원으로 11개 연안지역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 경남연안도 2022년 5조 2,789억 원에서 2023년 5조 3,950억 원으로 2.2% 소폭 증가하며 해양관광 시장규모에 비해 증가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전년 대비 가장 높은 소비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부산(16.6%), 울산(13.6%), 전남(12.9%), 경기(12.3%), 충남(11.7%) 순으로 나타남



〈그림 6〉 연안지역 X 연도별 해양관광시장 규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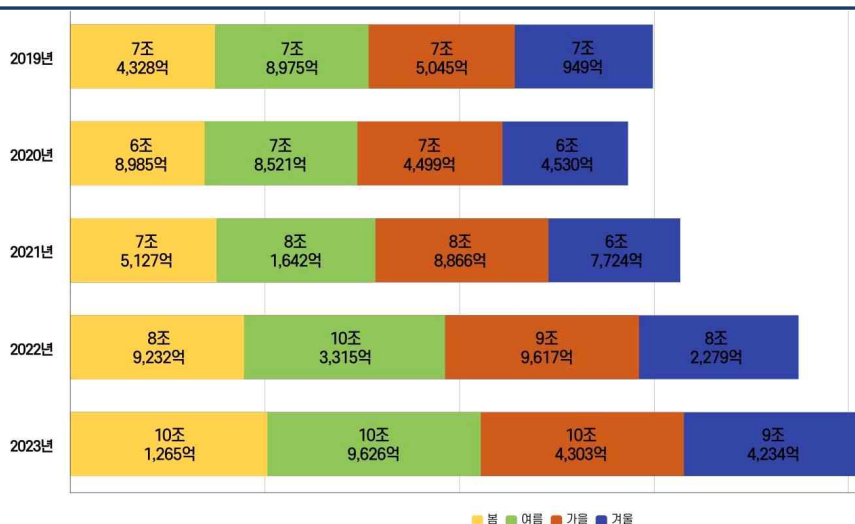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 ■ 우리나라 해양관광시장 소비패턴은 사계절 관광 선호로 변화 뚜렷해져

- 2023년 계절별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 분석 결과 여름철(6월~8월) 10조 9,626억 원, 가을철(9월~11월) 10조 4,303억 원, 봄철(3월~5월) 10조 1,265억 원으로 해양관광의 계절별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음을 보임
- 관광객들의 사계절 연안지역 이용 트렌드를 반영하여 계절에 구애받지 않는 인공 파도풀과 서핑장, 실내 스킨스쿠버장, 사계절 테마형 해수욕장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사계절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이 꾸준히 요구되며, 이는 향후 해양관광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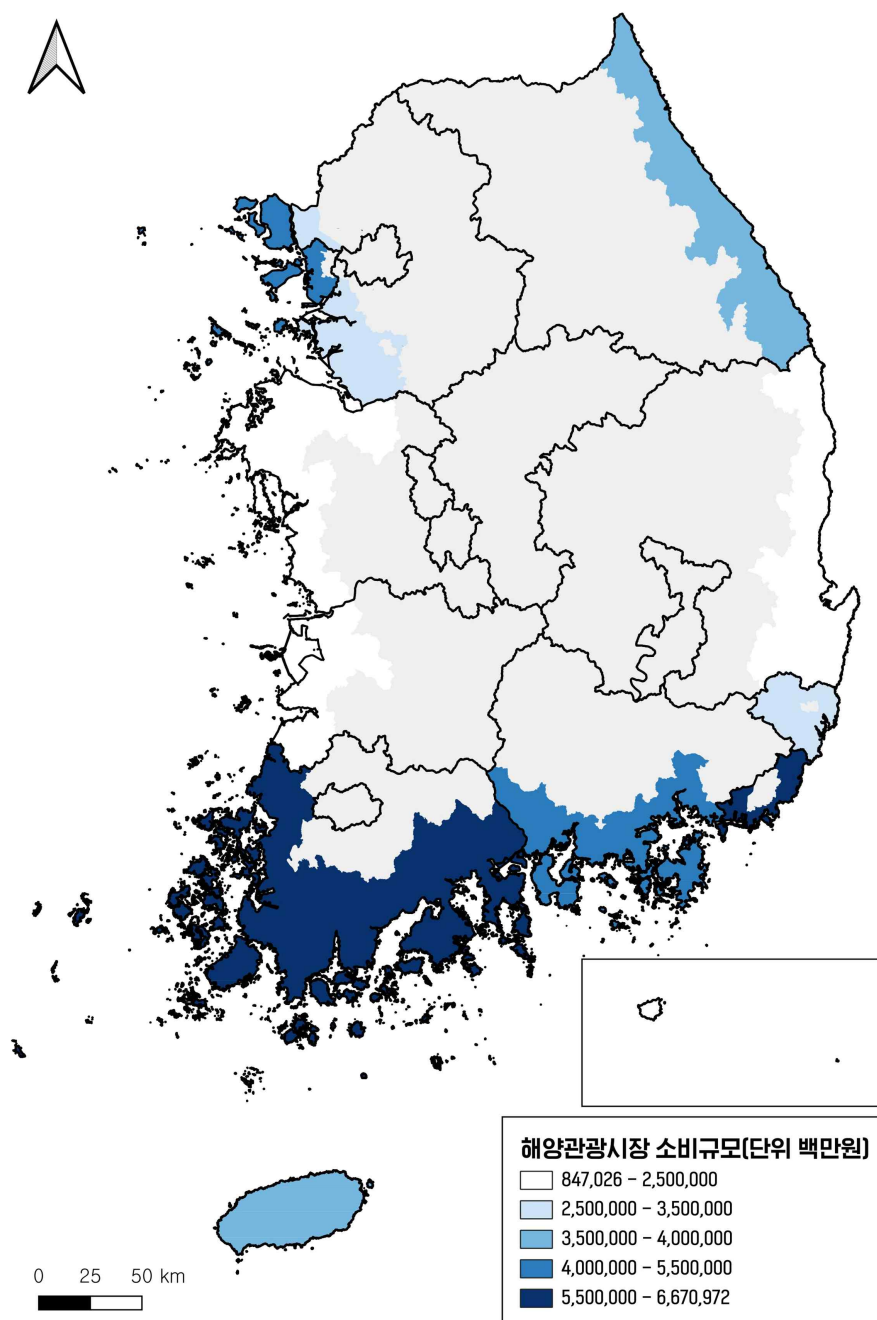
〈그림 7〉 계절별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 비교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그림 8〉 2023년 연안지역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 현황

(단위: 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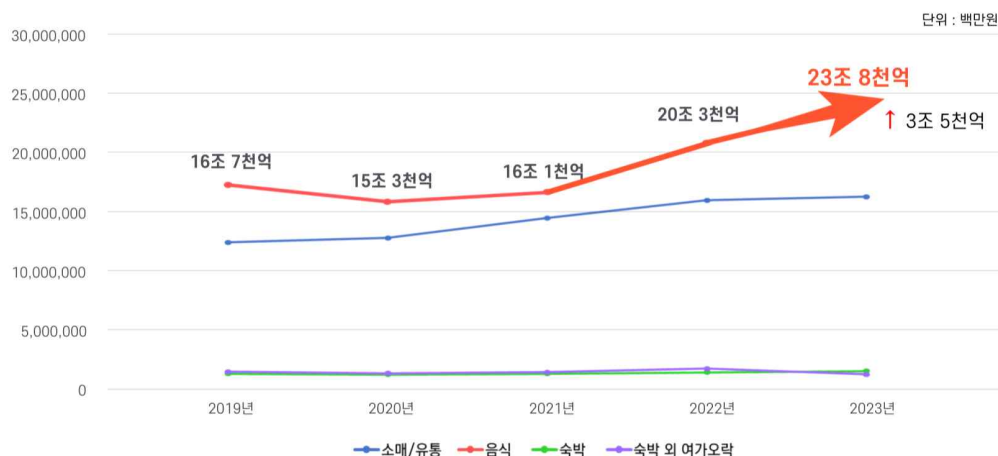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 해양관광시장 업종별 소비트렌드 분석

### ■ 2023년 기준 연안지역 음식 업종 소비가 가장 높은 편으로 약 24조 원 수준

- 연안지역 해양관광 업종인 소매/유통, 숙박, 숙박 외 오락, 음식 업종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음식 업종 소비 비중(58.2%)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소매/유통(38.4%), 숙박(2.0%), 숙박 외 여가오락(1.3%)의 순으로 분석됨
- 음식 업종의 소비는 2023년 기준 약 23조 8,431억 원으로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소비가 약 3조 5,564억 원 대폭 증가하여 코로나 이후의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소매/유통, 숙박, 숙박 외 여가오락 업종의 경우 소비액 증감의 변동이 상대적으로 적어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보임

〈그림 9〉 업종별 해양관광 소비트렌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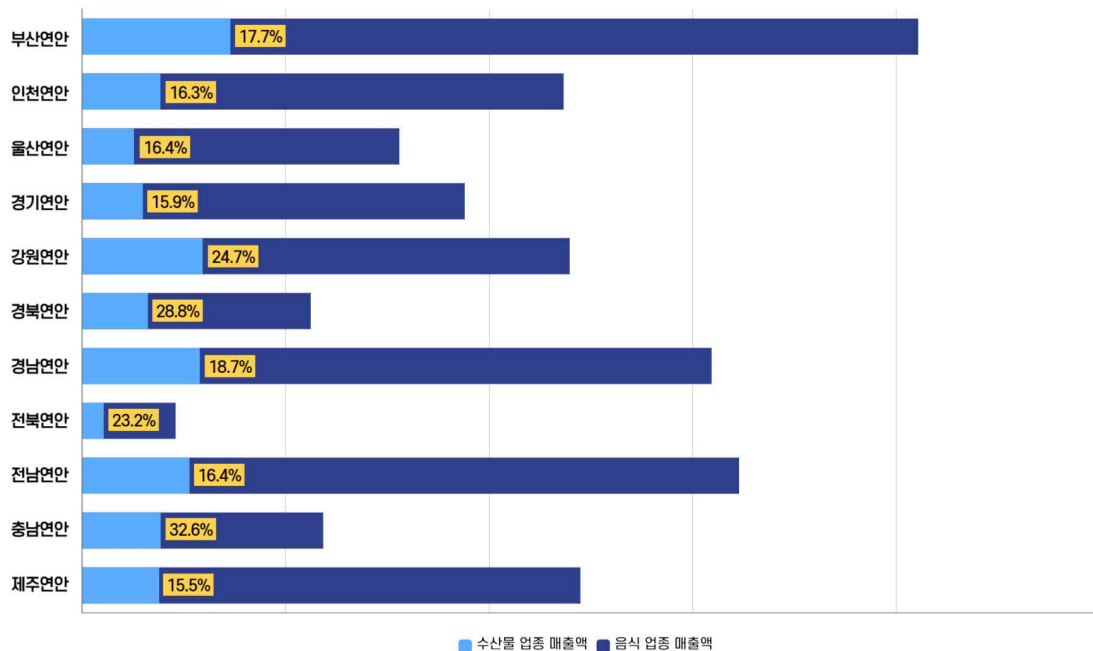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작작성

### ■ 수산물 관련 업종 매출액은 부산이 가장 높으며, 음식 업종 대비 비중으로는 충남이 32.6%로 가장 높은 편

- 연안지역의 수산물 업종 매출액은 4조 5,606억원으로 전체 음식업종의 19.1% 비중을 차지
- 수산물 업종의 매출액이 높은 지역은 부산(7,285억원), 강원(5,923억원), 경남(5,782억원) 순으로 나타났고, 이를 음식 업종 대비 수산물 소비의 비중으로 보면 충남(32.6%), 경북(28.8%), 강원(24.7%) 순으로 나타남

- 충남연안과 경북연안의 경우 음식업종의 매출액은 각 1조 1,847억 원, 1조 1,232억 원으로 다른 연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지만, 수산물 관련 업종의 매출액 비율이 각 32.6%, 28.8%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음
- 반면에 제주연안과 인천연안은 음식업종의 매출액은 각 2조 4,481억 원, 2조 3,658억 원으로 다른 연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수산물 관련 업종의 매출액 비율이 각 15.5%, 16.3%에 불과함
- 다만, 해당 분석은 수산물 전문업종에 한정하여 진행되었기 때문에 한식업종 등 다른 업종에서 수산물의 소비 비중이 적게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 수산물 업종의 매출 비중은 더 높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필요

〈그림 10〉 연안지역 X 음식 업종 중 수산물 업종 매출 비중(2023년 기준)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 ■ 2023년 기준 연안지역별 해양관광 업종 소비규모는 상이하나, 전체적으로 소비비중이 높은 부산, 전남, 경남이 모든 업종에서 대체로 높은 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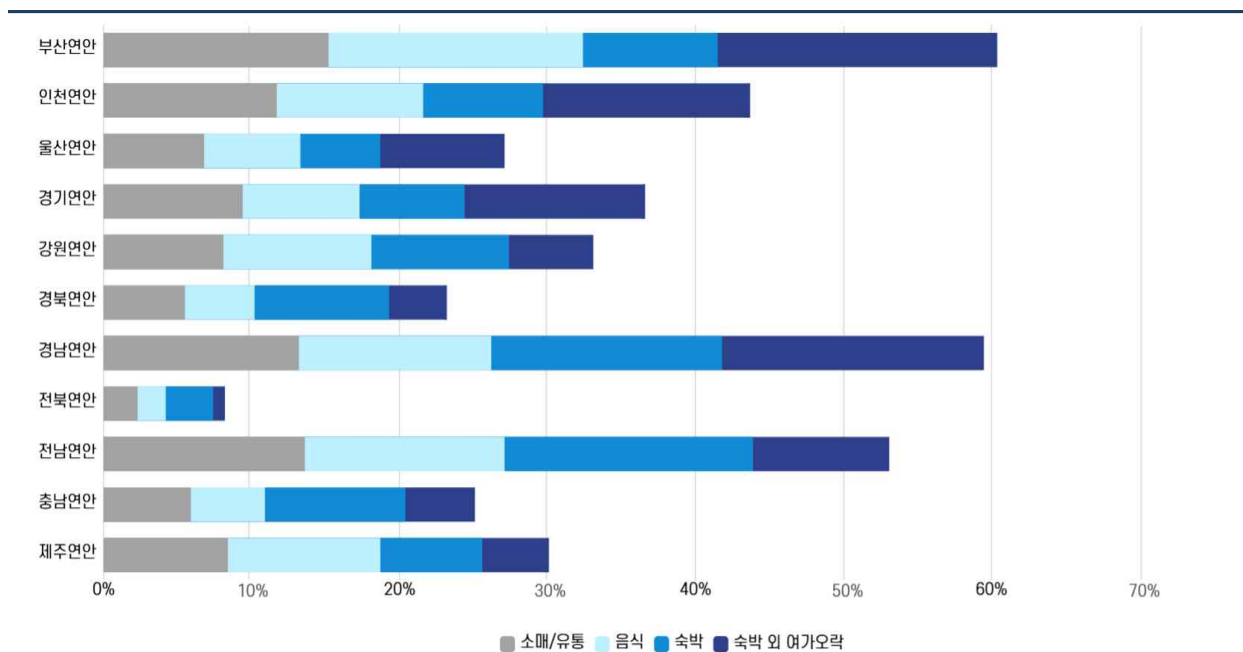
- 남해안에 해당하는 부산연안, 전남연안, 경남연안에서 업종별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 연안지역에 따라 업종별 매출액과 비중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남
- 특히 부산연안의 경우 음식 업종의 소비 비중(17.2%)이 전남연안 및 경남연안의 소비 비중(각

13.5%, 13.0%)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숙박 업종의 소비 비중(9.1%)은 전남연안 및 경남연안의 소비 비중(각 16.8%, 15.6%)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 반면에 전북연안의 소매/유통(2.3%), 음식(1.9%), 숙박(3.2%), 숙박 외 여가오락(0.8%) 업종의 소비 비중이 다른 연안지역에 비해 모두 낮게 나타남
- 충남연안과 경북연안의 경우 음식업종의 비중(각 5.0%, 4.7%)이 낮고 상대적으로 숙박업종의 비중(각 9.5%, 9.1%)이 높은 공통점을 가짐

〈그림 11〉 연안지역 X 업종별 해양관광시장 소비트렌드(2023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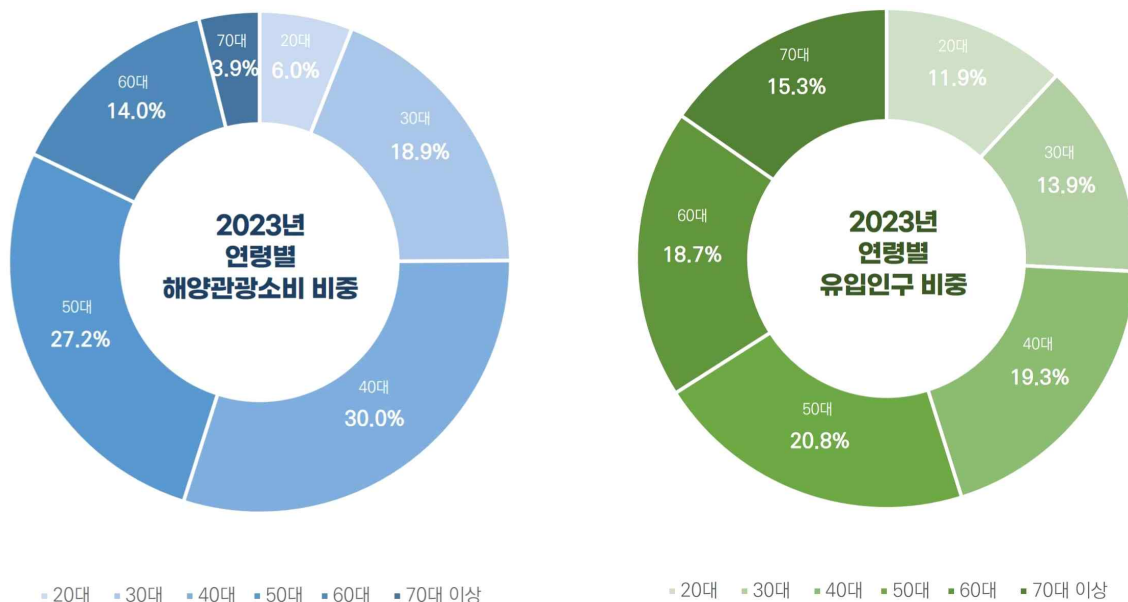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작작성

## 해양관광시장 연령별 소비트렌드 분석

### ■ 해양관광소비는 40대~50대에 집중된 반면, 유입인구는 더 넓은 연령대에 분포

- 우리나라 해양관광시장은 40대~50대의 소비와 유입인구 비중이 높은 편
- 연안지역에 많이 방문은 하지만 해양관광소비 비중이 낮은 연령대는 20대, 60대, 70대 이상이었  
고, 30대, 40대, 50대는 유입인구 대비 해양관광소비 비중이 큰 것이 특징임
- 해양관광소비 비중은 40대와 50대가 가장 크게 나타나 가족형 관광이 많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  
으며, 지난 1년간 가장 소비 비중이 컸던 연령대는 40대(30.0%)였고, 50대(27.2%), 30대(18.9%),  
60대(14.0%) 순으로 컸음
- 이는 「KMI 동향분석」 제197호 결과인 전년도 연안·어촌 해양관광객의 1인당 연간 평균  
지출액(약 26만 5천 원) 대비 50대의 지출액(305,931원)이 전 연령 대비 15% 높았으며,  
40대(289,182원)가 그다음으로 높은 지출을 기록한 결과와 유사<sup>7)</sup>
- 한편, 40대 이상 해양관광객이 많이 유입되고 있었는데, 유입인구 비중은 50대가 가장 컸고,  
40대, 60대, 70대 이상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고령층의 연안지역 방문이 활발함을 보여줌

〈그림 12〉 2023년 연령별 해양관광소비 비중 및 유입인구 비중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자작성

7) 최일선 외(2024.4.). 가명정보 빅데이터 결합을 통한 연안·어촌관광 소비행태 분석. KMI 동향분석, 제197호, pp.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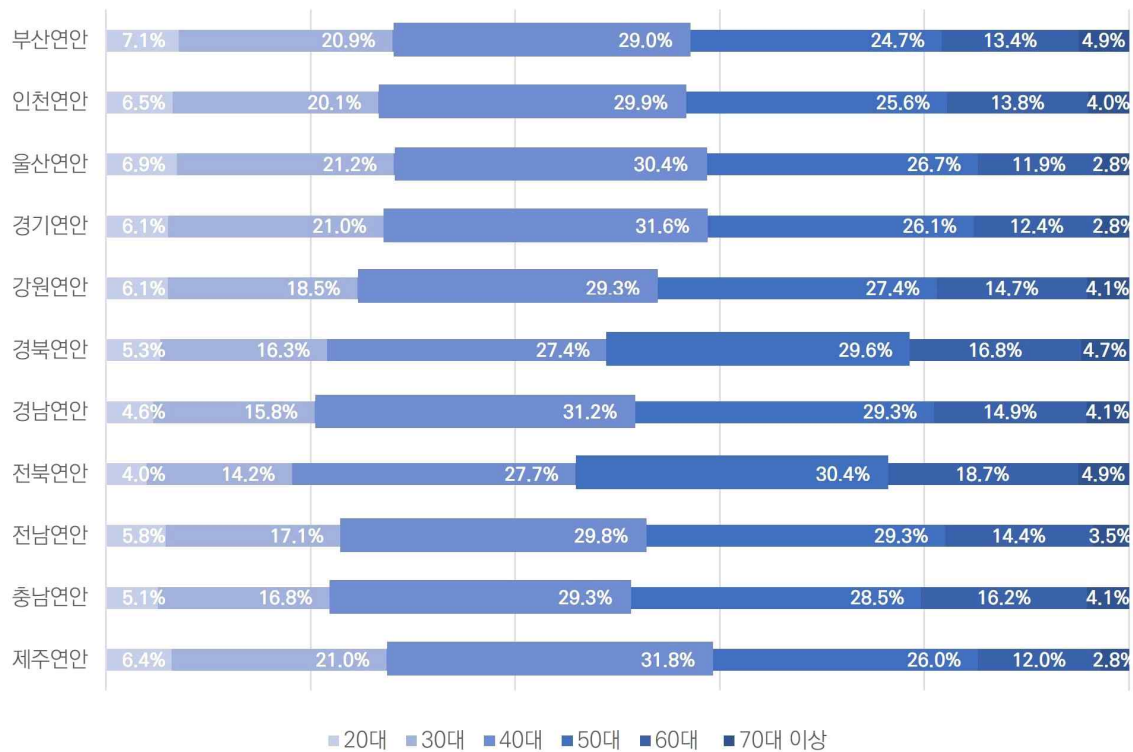


## ■ 2023년 기준, 대다수 연안지역의 해양관광소비는 40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 부산, 인천, 울산 등 연안광역시와 대다수 연안지역에서는 40대 해양관광소비 비중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커 해양관광시장의 주요 소비층이지만, 경북과 전북 연안지역에서는 50대가 가장 큰 해양관광소비 비중을 차지함
- 대부분의 연안지역에서는 20대가 70대 이상보다 해양관광소비 비중이 컸으나, 전북연안만 유일하게 70대 이상(4.9%)이 20대(4.0%)보다 해양관광소비 비중이 컸음
- 제주연안은 다른 연안지역과 비교해 해양관광소비 비중이 가장 큰 40대(31.8%)와 가장 적은 70대 이상(2.8%)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남

〈그림 13〉 연안지역 x 연령별 해양관광시장 소비규모 트렌드(2023년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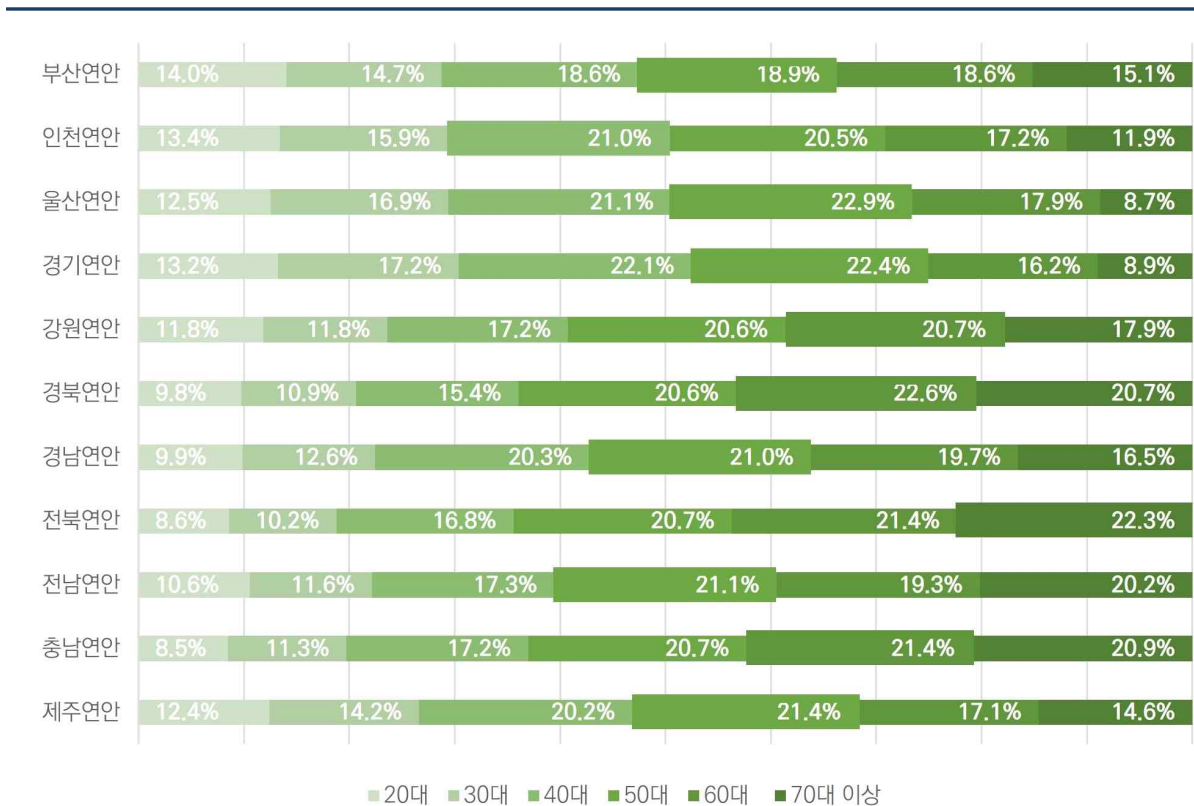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작작성

## ■ 연안지역 유입인구는 50대와 60대의 비중이 높아 해양관광객의 연령대가 높은 편으로 중장년층의 연안지역 방문이 활발함을 의미

- 부산(18.9%)과 울산(22.9%), 경기(22.4%), 경남(21.0%), 전남(21.1%), 제주(21.4%) 등 대다수 연안지역에서는 50대 유입인구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60대가 컸음
- 특히 전북연안은 연안지역 중 유일하게 70대(22.3%) 유입인구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 60대(21.4%), 50대(20.7%)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해양관광객의 연령대가 높았음
- 인천연안 유입인구 비중이 가장 컸던 연령대는 40대(21.0%)로, 다른 지역에 비해 해양관광객의 연령대가 비교적 낮은 편
- 부산연안은 비교적 유입인구가 전 연령대에 고르게 분포하면서(14.0%~18.9%), 연령대 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특징적임

〈그림 14〉 연안지역 x 연령별 유입인구 트렌드(2023년 기준)

(단위: %)



자료: 나이스지니데이터(주) 참고 저작작성

## 정책적 시사점

### ■ 사계절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방안 모색 필요

- 우리 연안지역은 사계절 소비패턴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여 계절별 집중도를 완화하기 위한 사계절 해양관광 활성화 정책이 요구됨
-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권역별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을 포함하여, 인공 파도풀, 서핑장, 실내 스킨스쿠버장 등 연안지역의 실내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 확대 및 사계절 해수욕장 이용 고도화 방안 등이 필요함

### ■ 지역별 특화 해양관광 전략 및 연령별 맞춤형 상품개발 필요

- 각 지역의 소비패턴을 반영하고 고유한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해양관광 상품개발이 요구됨
- 특히 연안지역은 식도락 관광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수산물 소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특산 수산물의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고 이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인 식도락 경험을 제공해야 할 것임
- 또한 강원, 제주, 경북 등은 연안지역 경제에 해양관광의 의존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강원, 제주, 충남의 경우 외지인 관광객을 위한 인프라 확충 전략을 마련하고, 내지인 관광객 소비비중이 높은 경남과 전남은 지역주민을 위한 친수·여가공간 조성 전략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임
-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며, 현재 해양관광 시장의 주요 소비층인 40대와 50대를 위한 가족형 관광상품, 중장년층을 위한 해양 힐링 및 웰니스 프로그램, 20대와 30대를 위한 해양레저 액티비티 중심의 관광상품 기획 필요

### ■ 데이터 기반 해양관광 정책 수립 추진

- 신용카드 빅데이터, 이동통신 데이터, 관광객 설문조사 등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해양관광시장의 소비패턴과 트렌드 분석을 통하여 관광객의 선호도와 행동을 정확히 파악하는 다각적 방안 모색이 필요
- 또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양관광시장의 분석 및 예측모델을 개발하여, 향후 시장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
- 정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종합적 발전 체계 구축을 통하여 데이터 기반의 해양관광 정책 수립 추진 필요